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권 2호(2013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3세부터 7세 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김수정 • 곽금주
진술조사 맥락에서 아동기억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	이승진
아동의 혼합정서 이해에 대한 정서 이야기 개입 효과	정윤경 • 송현미
후기 아동기의 종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연구	박지은 • 설경옥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인 -	조영일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종훈 • 성지현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 -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를 대상으로 -	방은정 • 성지현
성숙한 노화 태도와 성공적 노화 및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 - 성숙한 노화개념의 탐색 -	안정신 • 정영숙 • 서수균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자기 조절 능력이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하나

한국발달심리학회

2013년 6월 15일  
2013년 6월 15일

편집위원장: 정윤경(가톨릭대학교)  
편집위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김혜온(목포대학교)  
정영숙(부산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조영희(California State)  
송하나(성균관대학교)

발행처: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성은현(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78  
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내)  
전화: 041-560-8132

심사위원(가나다순):	곽금주 (서울대학교)	곽윤정 (세종사이버대학교)	김근영 (서강대학교)
김명식 (전주대학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수정 (서울대학교)	김연수 (서울대학교)
김현수 (한양대학교)	김희화 (부산대학교)	남은영 (서울여자대학교)	박영신 (경북대학교)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성은현 (호서대학교)	성현란 (대구가톨릭대학교)
송하나 (성균관대학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희옥 (군산대학교)	안신호 (부산대학교)
오영희 (덕성여자대학교)	유경 (한림대학교)	유연옥 (계명대학교)	이승복 (충북대학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이옥경 (성신여자대학교)	이종숙 (덕성여자대학교)	이현진 (영남대학교)
장문선 (경북대학교)	정명숙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정영숙 (부산대학교)	조아미 (명지대학교)
조영희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최영은 (중앙대학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학회 회원에게는 무료로 배부하며, 비회원에게는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한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학회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26, No. 2.

2013. 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Cheon An, Korea.

Editor: Yoon-Kyoung Jeo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Editor:

Hye-On Kim(Mokpo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Na Song (Sungkyunkwan University)

Hyeon-Ju Song(Yonsei University)

Young-Hee Cho(California State University)

Young-Sook Jeong(Busan National University)

\* 이 학술지는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 종 훈

성 지 현<sup>1)</sup>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493명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부갈등,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지능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이었다. 둘째,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를 단순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을 이중매개 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들 중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은 부모역할만족도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유아의 정서지능,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 부부갈등, 매개효과

인간은 태아기부터 어머니와의 정서적 교감을 시작으로 영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며,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이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타인과의 소통과 사회에서의 리더십이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social

work)”을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타인이 자신의 행동에 화를 낼지 기분이 좋을지 예측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적절치 못한 감정을 숨기는 것과 같은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정옥분, 2006). 이처럼 정서는 우리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인간의 인지

1) 교신저자: 성지현, E-mail: sungjh@skku.edu

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이 경시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흥미롭고 가장 급격하게 확장되어 가는 연구 분야이다(Berk, 2009).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는 1990년 Mayer와 Salovey가 인간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서와 지능의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인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서지능은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과정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를 사고나 행동에 대한 정보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Mayer, Caruso, & Salovey, 1999). 이러한 정서지능은 인지지능(Recognition Intelligence)과 달리 후천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유아기와 아동기가 정서지능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는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과 발달심리 분야에서는 유아기에서부터 발달시켜야만 하는 심리·정서 영역으로 정서지능을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EBS 제작팀, 2012; Zeidner, Matthews, Roberts, & MacCann, 2003).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발달시키게 될 첫 번째 기회는 유아기에 찾아온다. 특히 만 4, 5세 유아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고, 꾸밈음이나 비평에 민감하고, 감정도 쉽게 상하며 고집도 세어지는 등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빈도나 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자신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Sullivan & Lewis, 2003; Thompson & Goodvin, 2007). 이 시기의 유아들은 부모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정서표현 많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강은주, 김영주, 2006), 부모의 양육의 질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 취원과 어머니들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어머니-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양적·질적으로 감소하였고(김보민, 박인전, 2013; 최민수, 김명복, 2012), 현재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과도하게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도하지 않게 유아들의 정서지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Goleman, 2006). 유아기 정서지능 발달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와 교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지성애, 정재은, 2011; Garner & Estep, 2001), 이후 아동기의 스트레스 조절, 문제행동, 대인관계와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권성은, 2003; Mavroveli, Petrides, Sangareau, & Furnham, 2009; Flavell, Miller, & Miller, 2002; Qualter, Whiteley, Hutchinson, & Pope, 2007), 성인기의 사회 적응과 직장 업무의 성공적 수행 등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문용린, 2011).

이러한 유아기의 정서지능은 유아가 자라면서 또래와 어울리며 연마되는 정서적인 기술도 있지만, 유아가 최초로 접하는 사회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놀이와 가정의 분위기를 통하여 처음 학습된다(박경자, 김송이, 2007; Guimond, Wilcox, & Lamorey, 2008). 특히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하여 자신만의 양육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기본내용 습득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차성혜, 도현심, 최미경, 2010; Coleman, Trent, Bryan, King, Rogers, & Nazir, 2002; Stepanie, Sonja, Maureen, & Kai,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정서지능 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 행동(sensitive caregiving), 즉 어머니의 신속하고, 지속적이며, 적절한 감정반응으로 나타나는 양육 행동은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며, 이러한 관계는 유아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돕고 탐색 욕구를 자극하여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희, 2010; 길경숙, 2006; 박성연, 박옥임, 한세영, 2009; 전정미, 유미숙, 2006). 반면 어머니의 과보호, 허용 그리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욕구 불만이나 정서발달장애, 부적응 행동 등과 같이 낮은 정서지능을 보여줌으로써(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Coleman et al., 2002), 어머니의 양육유형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학자들은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유아의 가정환경 분위기, 부모-자녀관계의 질, 또래관계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문용린, 2011; Goleman, 2006). 이러한 변인들 중 유아 정서지능의 발달은 특히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Gardner, Qualter, & Whiteley, 2011). 유아는 가정 내 가족이라는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법,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법, 이런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법,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 고려하는 법, 희망과 두려움을 읽어내고 표현하는 법 등의 정서지능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배우게 된다(이영, 조연순, 1995). 특히, 온화한 가정의 분

위기에서 생활하는 유아는 부모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정서표현양식을 관찰하며, 정서지능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킨다(김민정, 유연옥, 2011).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분위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지만, 그 요인들 가운데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과 부부 간의 관계의 질은 가정의 분위기에 좌우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Luster & Okagaki, 1993). 부모역할이란 결혼한 한 쌍의 남녀가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다(현온강, 조복희, 1994). 유아기의 부모들에게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이나 만족감 같은 결과는 긍정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에 원인이 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송하나, 2008; 임연신, 현온강, 2002). 일반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어머니-자녀관계를 맺게 되고(이진선, 정문자, 2007), 어머니-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들은 민감한 양육행동을 보여주어 유아의 정서발달을 촉진시켜 준다(Dunn, Brown, & Bearsall, 1991). 반대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의 경우, 양육행동에 있어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Hock, 1978; Lerner & Galambos, 1985),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김순혜, 2003).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과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명

확한 인식이나 충분한 준비과정이 없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현은강, 조복희, 1994). 부부간 욕구의 상충과 기대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부부갈등은 유아기 부모의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위기를 증가시키고, 부모역할만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서지능발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안설하, 문혁준, 2012; Gottman & Krokoff, 1989).

부부간의 갈등적 상황이 빈번하고 지속되는 가정의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 일반 생활 만족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Baber, 1994),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갈등은 어머니에게 있어 자녀의 지지, 부모역할갈등, 일반적 만족도와 같은 부모역할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김연미, 2007). 이와 더불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부정적인 면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이는 자녀에게 더 많은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게하는 원인이 되고(Floyd, Gilliom, & Costigan, 1998; Yu, Pettit, Lansford, Dodge & Bates, 2010),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박성연, 임희수, 2000).

또한 부부간의 갈등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출시키는 원인이 됨으로, 부모의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목격하는 유아는 생리적 각성 수준이 높고(Jenkins, 2000), 심리적으로 보다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또래관계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갈등을 많이 보이는(Block, Block, & Gjerde, 1986)

등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rdner, Qualter, & Whiteley, 2011; Rubin, Burgess, Dwyer, & Hasting, 2003). 즉, 부부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혼란시키는 원인이 되며, 유아의 정서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 부부갈등을 다루었다. 위 변인들과 정서지능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관계의 질(김경희, 2010; 김혜순, 2009), 부모역할(김연미, 2007)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길경숙, 2006; 김희경, 유미숙, 2010) 등 여러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가정환경의 영향이 중요한 유아기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변인들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과 경로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변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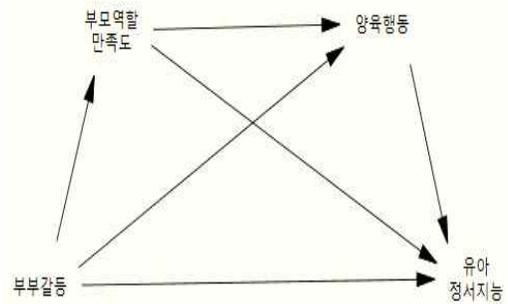


그림1.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부부갈등, 양육행동 및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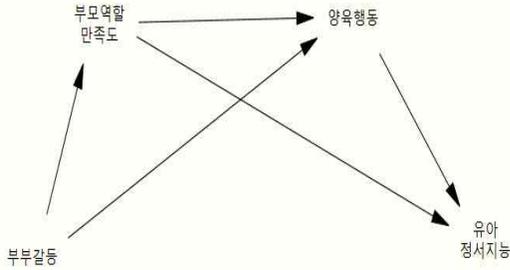


그림2. 경쟁모형1

능 관계에서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유아의 안정적인 정서지능발달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로를 연구모형과 비교하기 위하여 직·간접 경로를 달리한 경쟁모형을 그림 2와 3에 제시하였다. 경쟁모형 1은 부부갈등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으로 가는 직접효과 제거한 모형이고, 경쟁모형 2는 부부갈등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으로 가는 직접효과를 제거한 모형이다.

### 연구문제

1. 부부갈등,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 및 유아의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부부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1. 부부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2.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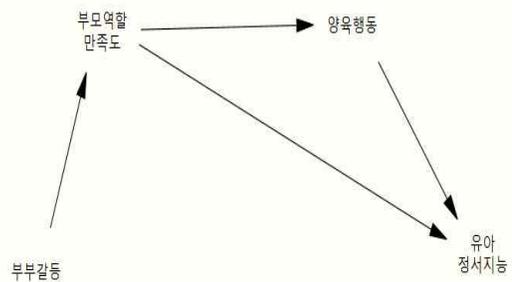


그림3. 경쟁모형2

- 2-3. 부부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4.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신뢰롭게 추정하기 위한 연구대상을 얻기 위해 관측변수 당 10~30배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기준(Mitchell, 1993)에 따라 층화무선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전북, 경남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13기관에서 만 4, 5세반에 재원중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7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유아를 통하여 각 가정으로 보내졌으며, 어머니가 연구에 동의하고 설문에 응답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총 562부였다.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하나의 척도에 모든 문항을 응답하지 않아 척도별 점수가 산출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총 493명(86.2%)의 자료가 통계분석에 사

용되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은 4세 255명(51.7%), 5세 238명(48.3%), 성별은 남아 269명(52.7%), 여아 233명(47.3%)이 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어머니의 연령은 35.2( $SD=4.04$ )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0명(48.1%), 대학교 졸업 238명(49.8%), 대학원 졸업 10명(2.1%)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72명(15.0%),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 159명(33.1%),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 142명(29.6%), 400만원 이상 107명(22.3%)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부부갈등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Poster와 O'Leary(1980)의 O'Leary-Poster Scale을 어주경(1999)이 번안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갈등이 자녀의 행동 문제를 예언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부부갈등 중 특히 자녀 앞에서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갈등의 빈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자녀 앞에서 자녀의 훈육에 관하여 종종 말다툼을 한다.', '자녀 앞에서 나와 남편은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신체적인 적대감을 표현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에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7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역할만족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

은강과 조복희(1994)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이며 5개 하위요인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배우자 지지', '부모역할갈등' 및 '자녀의 지지'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5으로 나타났다.

#### 양육행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rase, Clark와 Pease(1978)가 개발한 IOWA 부모 양육행동 척도(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홍계옥(199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어머니 양육행동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에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하여 이병래(1997)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인식 및 표현능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타인조절 및 대인관계 능력' 4가지 하위영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에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유아의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

표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493)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부부갈등	1													
<u>부모역할만족도</u>														
2. 자녀지지	-.18**	1												
3. 부모역할갈등	.51***	-.36**	1											
4. 일반적만족도	-.31**	.64***	-.47**	1										
5. 부모자녀관계	-.35**	.52***	-.57**	.59***	1									
6. 배우자지지	-.52**	.25***	-.42**	.38***	.54***	1								
<u>양육행동</u>														
7. 애정성	-.30**	.51***	-.40**	.53***	.62***	.39***	1							
8. 반응성	-.19**	.35***	-.17**	.48***	.35***	.16***	.55***	1						
9. 합리적 지도	-.32**	.43***	-.41**	.50***	.57***	.34***	.70***	.54***	1					
10. 한계설정	-.23**	.21***	-.17**	.24***	.30***	.23***	.43***	.37***	.54***	1				
<u>유아의 정서지능</u>														
11. 타인조절	-.20**	.44***	-.23**	.40***	.41***	.26***	.44***	.35***	.47***	.29***	1			
12. 타인인식	-.22**	.42***	-.24**	.45***	.41***	.29***	.46***	.39***	.45***	.30***	.59***	1		
13. 자기조절	-.16**	.20***	-.28**	.24***	.32***	.30***	.34***	.13**	.30***	.18***	.38***	.44***	1	
14. 자기인식표현	-.23**	.36***	-.28**	.38***	.35***	.29***	.42***	.24***	.36***	.34***	.42***	.38***	.19***	1
M	3.10	3.10	2.63	3.52	2.96	3.34	3.21	3.04	3.12	2.12	3.35	2.85	2.68	1.88
SD	.33	.32	.32	.33	.32	.36	.31	.33	.41	.39	.37	.29	.55	.42

\*\* $p < .01$ , \*\*\* $p < .001$ .

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5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경로모형의 측정모형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의 측정모형부합도는 절대적 적합지수인  $\chi^2$ (Chi-square),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표 2. 측정모델부합도 지수

적합도	$\chi^2$	df	p	TLI	CFI	SRMR	RMSEA
측정모형	463.97	126	.000	.903	.920	.058	.074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와 검증효과를 위하여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고, 직·간접효과는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홍세희, 2012).

## 결 과

###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는 -.57 ~ .70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0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측정도구 중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지능의 경우 다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검사 도구로서 각 지표변수가 개념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든 요인에 속하는 혼합하는 방법인 개념영역대표성 접근법(domain representative approach)을 사용하였고, 부모갈등의 경우 일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항으로서 임의할당방법(random assignment)을 사용하여 문항묶음(item parceling)

하였다(홍세희, 2012; Mahmut & Menictas, 2011).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 SRMR를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03, CFI=.920, SRMR=.058, RMSEA=.074로 나타났으며, Hu & Bentler(1999)와 Browne & Cudeck(1993)의 구조모형적합도 권장지수에 근거해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과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표 2와 같다.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그림 4),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이 .5 이상( $C.R.>1.965$ )으로 관측변수들의 수렴 타당도를 만족하였고, 잠재변수들 간 상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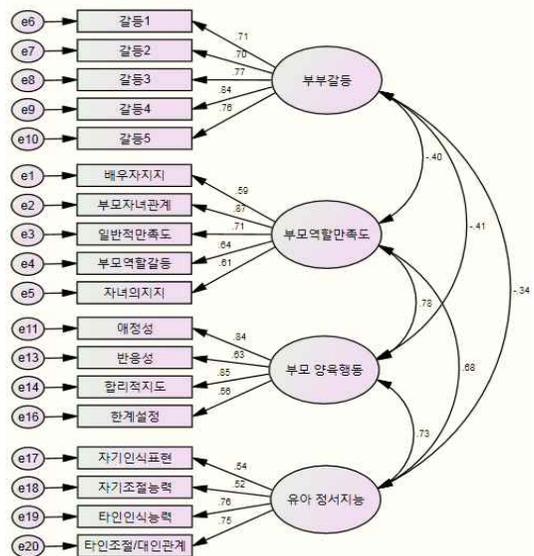


그림 4. 측정모형의 요인분석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i>B</i>	$\beta$	<i>S.E.</i>	<i>C.R.</i>	<i>p</i>
부부갈등	갈등1	.891	.715	.057	15.754	.000
	갈등2	.763	.698	.050	15.346	.000
	갈등3	.812	.773	.047	17.163	.000
	갈등4	1.030	.842	.055	18.769	.000
	갈등5	1	.761	-	-	-
부모역할만족도	배우자지지	1.306	.588	.121	10.770	.000
	부모자녀관계	1.021	.865	.074	13.822	.000
	일반적만족도	1.053	.713	.067	15.613	.000
	부모역할갈등	1.011	.636	.088	11.423	.000
부모양육행동	자녀의 지지	1	.610	-	-	-
	애정성	1.478	.843	.117	12.649	.000
	반응성	1.253	.632	.117	10.730	.000
	합리적지도	1.459	.847	.115	12.674	.000
유아정서지능	한계설정	1	.558	-	-	-
	자기인식표현	.701	.542	.065	10.838	.000
	자기조절능력	.664	.516	.064	10.319	.000
	타인인식능력	.977	.761	.067	14.639	.000
	타인조절/대인관계	1	.754	-	-	-

-.41 ~ .80으로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모형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표 3과 같다.

### 제안모델과 경쟁모형의 적합성 분석

부부갈등,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시한 경쟁모형들과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을 비교하면, 경쟁모형 1과는  $\chi^2$  값의 차이는 0.03,  $df = 1$ 의 차이를 보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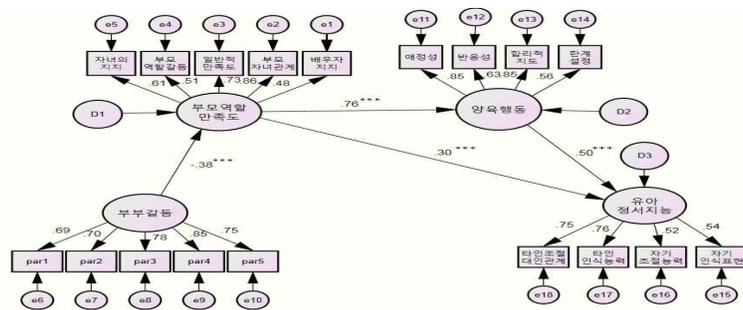
었고, 경쟁모형 2 와는  $\chi^2$  값의 차이는 12.42,  $df = 2$ 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유도 값이 1 차이가 날 때,  $\chi^2$ 의 값이 3.84 이상 차이가 나면 유의한 모형으로 판정함으로(홍세희, 2012), 경쟁모형 2는 연구모형과 유의하게 다르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은 최종모형으로 채택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을 모두 충족하면서 모형의 적합도 지수 TLI, CFI, SRMR, RMSEA 모두에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가장 경제적인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15.59$  ( $df=124$ ,  $p=.000$ ), TLI=.915, CFI=.931, SRMR=.052, RMSEA=.069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표 4.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지수

적합도	$\chi^2$	<i>df</i>	<i>p</i>	TLI	CFI	SRMR	RMSEA
연구모형	415.59	124	.000	.915	.931	.052	.069
경쟁모형1	415.62	125	.000	.916	.931	.052	.069
경쟁모형2	428.01	126	.000	.913	.928	.056	.070

표 5. 최종 구조모형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t	p
부부갈등 → 부모역할만족도	-.225	-.384	.034	-6.619	.000
부부갈등 → 양육행동	-.018	-.029	.029	-.638	.523
부모역할만족도 → 양육행동	.825	.757	.074	11.162	.000
부부갈등 → 유아정서지능	.004	.009	.020	.183	.855
부모역할만족도 → 유아정서지능	.213	.300	.063	3.374	.000
양육행동 → 유아정서지능	.326	.500	.059	5.573	.000



\*\*\* $p < .001$ .

그림5. 최종모형의 표준화계수 추정결과

**최종모형 분석**

부부갈등, 부모역할만족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와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384,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행동( $\beta = .757, p < .001$ )과 유아의 정서지능( $\beta = .300, p < .0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역할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500,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 수준이 낮아졌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양육행동 및 낮은 유아정서지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인간의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6과 같다.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째, 변인 간의 간접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유아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beta = .009, n.s.$ ),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간접영향( $\beta = -.275, p < .01$ )을 미치는 완전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역할만족도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표 6. 최종경로 모형의 경로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R <sup>2</sup>
부부갈등 → 부모역할만족도	-.384***	-	-.384***	.147
부부갈등 → 양육행동	-.029	-.291**	-.319**	.591
부모역할만족도 → 양육행동	.757***	-	.757***	
부부갈등 → 유아정서지능	.009	-.275**	-.266**	.566
부모역할만족도 → 유아정서지능	.300***	.379**	.679**	
양육행동 → 유아정서지능	.500***	-	.500***	

\*\* $p < .01$ . \*\*\* $p < .001$ .

직접적 영향( $\beta=.300, p<.001$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지능( $\beta=.379, p<.01$ )에 영향을 미치며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로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한 단순매개경로와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을 통한 이중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을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지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역할만족도이고( $\beta=.679, p<.01$ ), 다음으로는 양육행동( $\beta=.500, p<.001$ ), 부부갈등( $\beta=-.266, p<.01$ )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표 6), 부부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를 14.7% 설명하였고, 부부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행동을 59.1%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부갈등,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지능의 분산율 56.6%을 설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유아 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인 관계를 탐색해보고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의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영향의 첫 번째 경로는 부부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를 단순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경로는 부부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두 변인을 이중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부부갈등이 부모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간접 경로는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났다. 첫 번째 간접경로는 부

부갈등이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단순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간의 갈등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이 낮아졌고, 이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 관련한 부부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머니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결국 유아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송은하, 방희정, 옥정, 정은정, 2008)와 유사하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장영애, 이영자, 2011)와 부모역할 만족의 하위 요인 중 부모역할 갈등과 자녀의 지지의 변인이 유아의 정서지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밝힌 연구(김연미, 2007)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이다. 부부간의 갈등은 부모역할에 대한 혼란을 발생시키고, 이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박영신, 안귀옥, 2012)이 되고, 이로 인한 어머니의 분노나 우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요인은 부모역할만족도는 물론, 유아의 정서지능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간접경로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을 이중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은 일차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차적으로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에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의 경우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일반 생활 만족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이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고(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Baber, 1994),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은 어머니는 자녀를 양

육하는데 있어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고(Hock, 1978; Lerner & Galambos, 1985), 유아에게 덜 민감하고, 애정적이지 못한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Thompson & Walker, 1989), 이러한 어머니에게 양육을 경험하는 유아들은 자기 인식이나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과 부적응 행동을 경험하며 유아의 정서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희경, 유미숙, 2010, 송진숙, 2003;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0; Coleman et al., 2002)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부부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부부간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어머니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를 있는 방안으로 부부간 대화법 프로그램, 부부교육과 같은 예방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유아의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이정순, 2010; Koss et al., 2011)와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가정의 유아는 어머니의 분노 표출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목격하여 생리적 각성 수준이 높고(Jenkins, 2000), 또래 관계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갈등을 많이 보이는 등 정서지능 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Block, Block, & Gjerde, 1986; Gardner, Qualter, & Whiteley, 2011; Rubin, Burgess, Dwyer, & Hasting, 2003)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부부

갈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고, 예측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향상되는 유아기 후기임을 고려하면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구조모형분석에서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선행변인으로서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고려할 때,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은 외생변인 가운데 유아의 정서지능에 가장 큰 직접효과를 보여주었던 일차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는 매개 변인에 따라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을 주는 경로와 구조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 관계를 직접적으로 매개하지 않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정미, 이양희, 2007; 정미경, 김영희, 2003)에서 부부갈등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앞서 부

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던 점과 유사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개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모형에서 부모역할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부모역할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다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강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 발달의 민감기인 유아기의 정서지능을 증진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만족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의 중요함을 확인시켜주고,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비부모역할 프로그램을 활발히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비부모교육은 부모로서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돕고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접함으로써 보다 자신감 있는 양육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오늘날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과 결혼 생활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봄으로써 안정된 결혼생활과 긍정적인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한다는 점에서 예비부모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이원영, 김정미,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부 및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부모됨의 소중함과 책임감, 가치관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박수경, 조병은, 2009; 조성연, 2006).

예비 부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 형성과 부부관계 및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지능 발달, 부부의 갈등 해결,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이 증진되기 위하여 체계적인 부모교육 및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지능의 근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가정환경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부부갈등과 부모역할만족, 어머니의 양육유형의 변인을 포함하여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부갈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 영향 보다는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매개변인으로서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세 가지 독립변인 가운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결과는 횡단적 설계에 의한 측정으로서 인과관계를 분명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실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찰법, 인터뷰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 경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만을 살펴보고 있다. 부부간의 갈등이 아버지의 부모만족도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매개 경로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이외에도 두 변수간의 관계를 매개시켜줄 수 있는 환경적 변인의 매개적 효과를 추후 연구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은주, 김영주 (2006).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차이.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0(4), 113-133.
- 곽금주, 김정미, 유재민 (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권성은 (2003). 초등학교생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2), 163-176.
- 길경숙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2(2), 147-164.
- 김경희 (2010).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유연옥 (2011). 부모의 정서표현유형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아동교육*, 20(1), 95-111.
- 김보민, 박인진 (2013). 어머니-교사 관계와 유아

- 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구조적 관계 어머니-교사 관계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77(4), 123-150.
- 김연미 (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혜(2003).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교육심리학회*, 17(4), 1-12.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혜순(2009). 부부갈등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경, 유미숙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5), 115-130.
- 문용린 (2011). 문용린 교수의 정서 지능 강의: 부모와 아이가 함께 키워야 할 마음의 힘. 서울: 북스넛.
- 박경자, 김송이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성연, 박응임, 한세영 (2009). 아동양육방식. *아동학회지*, 30(6), 15-28.
- 박성연, 임희수 (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수경, 조병은 (2009). 실천적 추론 수업을 적용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부모 됨'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 안 개발과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2), 187-202.
- 박영신, 안귀옥 (2012).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 효능감이 기혼남녀의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65-90.
- 송은하, 방희정, 옥정, 정은정 (2008).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2(1), 1-13.
- 송진숙 (2003).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영유아보육학*, 35, 143-161.
- 송하나 (2008). 유아의 성과 애착안정성이 정서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99-111.
- 안설하, 문혁준 (2012).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89-103.
- 여주경 (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래 (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 조연순 (1995). *아동의 세계*. 서울: 양서원.
- 이원영, 김정미 (2011).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3-58.
- 이정순 (2010). 부부관계가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 및 유아의 정서불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회지*, 14(3), 37-56.
- 이진선, 정문자 (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

- 모역할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지지와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5), 85-94.
- 임연신, 현은강 (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27.
- 장영애, 이영자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83-205.
- 전정미, 유미숙 (2006).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7(3), 225-240.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영유아 관련 뇌 기반 연구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31(2), 213-237.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조성연 (2006).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지성애, 정재은 (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인지능력, 또래상호작용,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분석. *유아교육학회지*, 15(5), 335-358.
- 차성혜, 도현심, 최미경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1(4), 125-137.
- 최민수, 김명복 (2012). 유아교육기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자기조절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59-382.
- 현은강, 조복희 (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홍계옥 (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12).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모형*. S & M Research Group.
- Barber, B. K. (1994).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s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964-974.
- Berk, L. E. (2009). *Child Development*(8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Block, J. H., Block, J., & Gjerde, P. J. (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7, 827-84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A: Sage.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 Cruse, S. P.,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Dunn, J., Brown, J.,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448-455.
- EBS 제작팀 (2012). *아이의 정서지능*. 서울: 지식

- 채널.
- Flavell, J. H., Miller, P. H., & Miller, S. A. (2002). *Cognitive Development*. NJ: Prentice Hall.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9*, 1461-1479.
- Gardner, K. J., Qualter, P., & Whiteley, H. (2011). Developmental correlates of emotional intelligence: Temperament, family environment and childhood trauma.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3*(2), 75-82.
- Garner, P. W., & Estep, K. M. (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29-48.
- Goleman, D. P. (2006).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Guimond, A. B., Wilcox, M. J., & Lamorey, S. G. (2008). The early intervention parenting self-efficacy scale(EIPES): Scale construction and initial psychometric evidence. *Early Intervention, 30*(4), 295-320.
- Hock, E. (1978).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perceptions of their careers, their infants' needs, and satisfaction with mo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7-43.
- Hu, L-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enkins, J. M. (200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emotions: The development of an anger organiz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23-736.
- Kline, R. B. (200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The Guilford Press.
- Koss, K. J., George, M. W., Bergman, K. N., Cummings, E. M., Davies, P. T., & Cicchetti, D. (2011). Understanding children's emotional processes and behavioral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9*(3), 336-352.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Luster, T., & Okagaki, L.(1993).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NJ: Hillsdale.
- Mahmut, M. K. & Menictas, C. (2011). Validat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in a community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23*, 670-678.
-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al

-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Mayer, J. D., Caruso, D., & Salovey, P. (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27(4), 267 - 298.
- Mavroveli, S., Petrides, K. V., Sangareau, Y., & Furnham, A. (2009).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and objective socio-emotional outcomes in childhoo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259-272.
- Mitchell, R. J. (1993). *Path analysis: pollination. In SM Schneider & J. Gurevitch, des. Design and analysis of ecological experiments*. NY: Chapman and Hall.
- Poster, B., & O'Leary, K.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Qualter, P., Whiteley, H. E., Hutchinson, J. M., & Pope, D. J. (2007).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petencies to ease the transition from primary to high school.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23, 79 - 95.
- Rubin, K. H., Burgess, K. B., Dwyer, K. M., & Hasting,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164-176.
- Stepanie, S., Sonja, P., Maureen, G., & Kai, K. (2010). Parental separation and children's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The impact of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family conflict. *Family Process*, 49(1), 92-108.
- Sullivan, M. W., & Lewis, M. (2003). Contextual determinants of anger and other negative expressions in young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693-705.
- Thompson, R. A., & Goodvin, R. (2007). *Taming the tempest in teapot. In C. A. Brownell & C. B. Kopp(Eds.),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the toddler years: Transitions and transformations*(PP.320-341). New York: Guilford.
- Thompson, L., & Walker, A. J.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Yu, T., Pettit, G. S., Lansford, J. E., Dodge, K. A., & Bates, J. E. (2010). The interactiv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on parent - 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2), 282-292.
- Zeidner, M., Matthews, G., Roberts, R. D., & MacCann, C. (2003).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Towards a multi-level investment model. *Human Development*, 46, 69 - 96.

---

1차 원고 접수: 2013.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3. 05. 26.

최종 게재 결정: 2013. 05. 29.

#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Jonghoon Kim

Jihyun Sung

**Dep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parent satisfac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preschoolers. A total of 493 mothers with 3-4-year-old preschool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arital conflict, parent satisfac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 marital conflict did not appear to directly influence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Third, marital conflict indirectly affected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by the complete mediation of parent satisfaction. Fourth, parent satisfaction and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indirect effects. Finally, parent satisfaction demonstrated the strongest effect on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among all the factors examined.

*Keywords: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mother's parenting behavior, parent-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mediating effect*

